

일본 경제 동향_2017년 2월

(미일정상회담으로 본 미일경제현안)

< 목 차 >

I. 일본 경제 지표	1
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	2
1. 경기 완만한 회복궤도	2
2. 무역수지 5개월 만에 적자	6
3. 엔저세 약화, 주가·금리 상승	9
4. 해외직접투자 3개월 만에 증가	10
III. 일본의 주요 정책	12
1. 미일정상회담으로 본 미일경제현안	12
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	15
1. 대일 무역적자 감소세 반전	15
2.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	17
V. 참고 자료	19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	19
2. 주요 경제 일정	20

I. 일본 경제 지표

구 분	2015	2016	2016							
			1/4	2/4	3/4	4/4	10월	11월	12월	1월
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, 2010=100)	-	-	-	-	-	-	113.5	115.1	115.2	-
GDP증가율(연율,%)	1.2	1.0p)	2.3	1.8	1.4	1.0p)	-	-	-	-
국내투자 (조엔)	민간설비투자	70.1	75.9p)	19.9	15.8	19.9	20.1p)	-	-	-
	공공투자	23.4	24.3p)	6.6	4.3	6.1	7.4p)	-	-	-
해외직접투자(조엔)*	70.0	68.2	19.6	12.7	18.6	17.1	5.4	4.8	6.9	-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전기비	0.5	△0.3	△0.3	△0.1	0.0	0.2	0.0	0.0	-
	전년동기비	0.5	△0.3	△0.1	△0.4	△0.5	△0.3	△0.4	△0.2	-
실업률(%)	3.4	3.4	3.2	3.2	3.0	3.1	3.0	3.1	3.1	-
수출(조엔)	75.6	70.0	17.5	17.0	17.0	18.6	5.9	6.0	6.7	5.4
수입(조엔)	78.5	66.0	17.2	15.5	16.0	17.2	5.4	5.8	6.0	6.5
무역수지(조엔)	△2.9	4.1	0.3	1.5	1.0	1.4	0.5	0.2	0.6	-1.1
경상수지(조엔)	16.4	20.6	5.9	4.6	5.7	4.2	1.7	1.4	1.1	-
환율	달러	121.1	108.8	115.3	108.1	102.4	109.4	103.8	108.2	116.0
	원화(100엔)	935	1,068	1,043	11,076	1,095	1,059	1,084	1,074	1,019
금리(10년물,%)	0.36	△0.051	0.051	-0.121	-0.128	-0.007	-0.060	-0.014	0.054	0.062
주가(닛케이)	19,203	16,920	16,843	16,393	16,500	17,951	17,045	17,690	19,066	19,194

주: p)는 1차 속보치 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□ (경기판단) 경기 완만한 회복궤도

- '16.12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15.2로 전월비 0.1p 상승

□ (소비자물가) 소비자물가 제자리걸음

- '16.12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.0%

□ (무역수지) 무역수지는 1조, 868억 엔 적자

- '17.1월 수출은 5조 4,219억 엔, 수입은 6조 5,088억 엔

□ (환율) 엔저세 약화

- '17.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4.7 엔으로 전월비 1.0% 엔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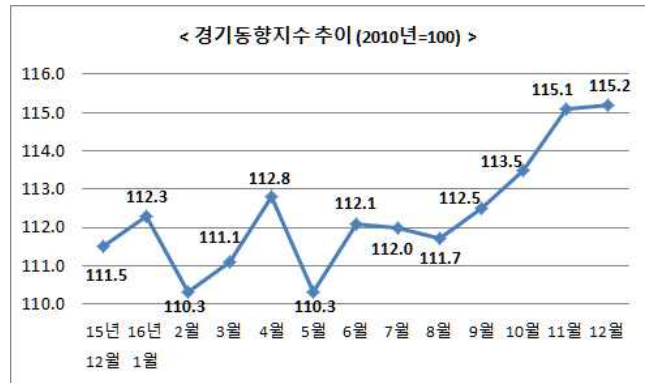
* '17.1월 엔/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,030원으로 전월비 1.1% 엔고·원저

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1. 경기 완만한 회복궤도

□ (경기기조 판단)

- 1월중 수출수량의 감소 등 일부 약세가 보이거나 고용·소득이 견조를 보임에 따라 개인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기회복궤도에 오르고 있음
-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12월 경기동향지수 (일치지수, 2010년=100)도 전월비 0.1p 상승한 115.2로 4개월 연속 상승



자료 : 내각부

-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의 생산 및 출하가 전월보다 개선된 점이 경기동향지수 상승의 주된 요인
- 일본 내각부는 전월에 이어 개선되고 있다는 경기기조판단을 유지

□ (전 망)

- 앞으로도 일본경제는 엔저를 배경으로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호조, 개인소비 회복에 공공투자까지 가세하여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
- 특히 2016년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28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과 최근 미일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저 및 주가상승 영향으로 수출, 내수 모두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
-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05.2로 전월보다 2.6p 개선
- 다만, 트럼프대통령의 보호주의적 정책, 중국경제의 감속 등에 의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, 개인소비와 내수자극 나아가 경제의 선순환에 필요한 임금인상 동향, 그동안 급증했던 임대용 주택투자의 향방 등 3가지 변수가 앞으로 경기를 좌우하는 리스크 요소

<GDP>

- 일본 내각부가 2월13일 발표한 2016년 4분기(10-12월) 실질 GDP(속보치)는 전기비 0.24%, 연율환산으로는 1.0% 증가함. 4분기 연속 플러스성장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자동차수출이 성장을 견인함
- 실질 GDP에 대한 외수기여도는 0.24%p,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출에 힘입어 전기비 2.6% 증가
 - 수출로 분류되는 방일외국인의 소비는 1.9% 증가
- 반면 내수는 실질GDP를 약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. 개인소비는 전기비 0.01% 감소
 - 주택투자는 0.2% 증가로 4분기 연속 플러스였으나 증가율은 전기의 2.4%에 비해 떨어짐
 - 공공사업은 1.8% 감소. 경제대책을 반영한 201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는 2017년 1분기 이후에나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임
 - 설비투자는 0.9% 증가로 2분기 만에 증가. 소프트웨어와 통신기기가 증가
- 2016년 실질 GDP성장률은 1.0%로 5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
- 한편, 일본의 민간 경제조사기관들의 경제성장을 전망치(14개 기관 평균치)는 일본 정부의 전망치를 약간 하회, 2017년도에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2016년도와 동일한 1.2%의 경제성장이 예상

<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(%) >

구 분	2015	2016	2015				2016			
			1-3월	4-6월	7-9월	10-12월	1-3월	4-6월	7-9월	10-12월
전기비	1.2	1.0p)	1.4	△0.1	0.2	△0.3	0.6	0.4	0.3	0.2p)
전기비연율			5.8	△0.4	0.8	△1.2	2.3	1.8	1.4	1.0p)
전년동기비			△0.1	1.8	2.1	1.1	0.3	0.9	1.1	1.7p)

자료: 내각부, p)는 1차 속보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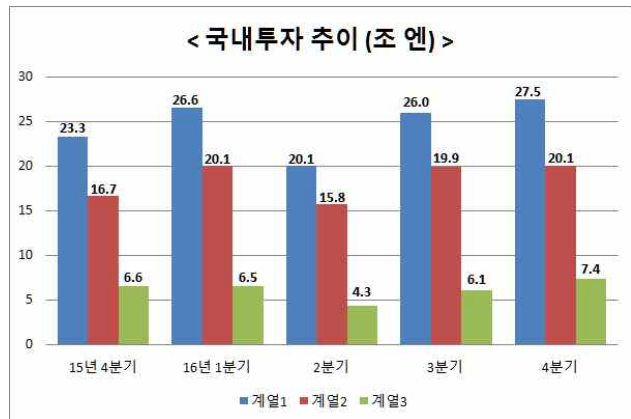
<국내 투자>

□ ‘16.4분기 국내투자, GDP의 19.5%

- ‘16.4분기 국내투자(민간설비투자+ 공공투자: 명목기준)규모는 전기비 5.3% 증가한 27.5조 엔으로 GDP의 19.5%

□ (민간설비투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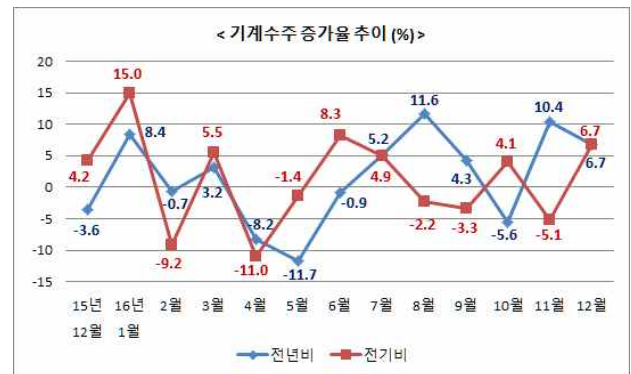
- ‘16.4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1.2% 증가한 20.1조 엔, 국내 투자의 73.4%를 차지
-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(12월 조사)에 의하면 2016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 산업에서 5년 연속 증가, 제조업은 6년 연속 증가, 설비투자의 과잉감은 회복 상태



자료 : 내각부

- 다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12월 기계 수주는 전월비 6.7% 증가

- 기업의 설비투자 마인드는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마이너스 요인



자료 : 경산성, 내각부

□ (공공투자)

- ‘16.4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18.7% 증가한 7.4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6.6%를 차지

- 최근 공공투자의 기반은 탄탄한 편

- ‘17.1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년동월비 7.1% 증가
- ‘16.12월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년동월비 14.5% 증가

- 2016년 8월 2일 각의에서 결정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등이 실시됨에 따라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가시화될 전망

<소비자물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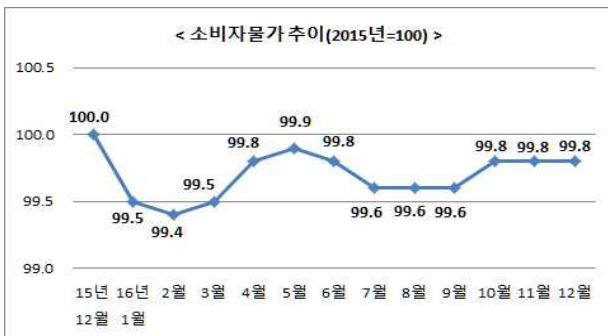
□ '16.12월 소비자물가 3개월째 제자리걸음

- '16.12월 소비자물가지수(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)는 전년비 99.8(2015년= 100)로 전월비 상승률은 3개월째 0.0%
 - 전년동월비로는 0.2% 하락
 - 그러나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.3% 상승
- 한편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비 -0.3%으로 4년 만에 마이너스
-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엔저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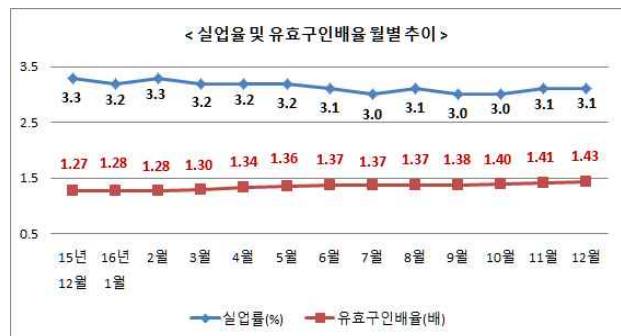
<실업률>

□ 고용사정 개선 지속

- '16.12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.1%
 - 자발적 이직자, 비자발적 이직자 모두 증가
 - 완전실업자 수는 209만 명으로 전월보다 4만 명 증가
- 유효구인배율은 0.02p 상승
 - '16.12월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 0.02p 상승한 1.43배로, 4개월 연속 상승
 - 교육·학습지원업, 건설업에서 신규 구인수가 크게 증가
-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,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·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


자료 : 총무성



자료 : 후생노동성

2. 무역수지 5개월만에 적자

(총 합) 수출 부진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

- '17.1월 무역수지는 1조, 868억 엔 적자로 5개월 만에 적자 반전
- 큰 폭의 수출감소가 적자반전의 주된 원인
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월의 1,822억 엔에서 9,093억 엔으로 대폭 확대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7,196억 엔에서 3,993억 엔으로 크게 축소
-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2,330억 엔에서 1,728억 엔으로 축소

< 2017년 1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6.12월			2017.1월	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수 출	6.7	5.4	11.7	5.4	1.3	-19.4
수 입	6.0	-2.6	3.4	6.5	8.5	8.3
수 지	0.6	361.6	200.0	-1.1	67.8	-

자료 : 재무성

□ (수 출) '17.1월 수출, 금액·물량 모두 감소

- '17.1월 수출은 전월대비 19.4% 감소한 5조 4,219억 엔
- 전월의 11.7% 증가에 비하면 수출은 큰 폭의 마이너스로 반전
-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20.6% 감소
- 5대 수출 품목은 원동기 대신에 플라스틱이 포함된 가운데,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
- 자동차부품의 수출감소폭이 -28.6%로 가장 크며, 이어 자동차와 플라스틱의 수출도 -20% 이상의 큰 감소폭을 보임

< 2017년 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억 엔, %) >

순위	품목	2016.12월			2017.1월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1	자동차	10,567	-4.7	2.6	8,105	-6.7	-23.3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497	14.9	11.2	2,923	3.1	-16.4
3	자동차부품	3,639	16.5	19.3	2,600	12.5	-28.6
4	철강	2,624	-4.8	15.5	2,498	8.1	-4.8
5	플라스틱	2,245	8.2	17.5	1,753	1.0	-21.9

자료 : 재무성

○ 주요 지역·국가에 대한 수출도 모두 감소

- 중국에 대한 수출감소폭이 -31.8%로 가장 큼

-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12.3% 감소

< 2017년 1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 (억 엔, %) >

순위	국가	2016.12월			2017.1월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1	미국	13,697	1.3	13.0	10,540	-6.6	-23.0
2	중국	13,013	12.5	18.0	8,871	3.1	-31.8
3	ASEAN	10,047	9.2	13.5	8,508	10.0	-25.3
4	EU	7,110	-4.0	12.3	5,965	-5.6	-16.1
5	한국	5,069	19.6	17.7	4,447	15.7	-12.3
6	대만	4,212	11.4	19.8	3,235	-3.3	-23.2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입) '17.1월 수입 금액, 물량 모두 증가

○ '17.1월 수입은 전월비 8.3% 증가한 6조 5,088억 엔

- 수입물량은 전월비 3.0% 증가

○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변동이 없는 가운데,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

- 통신기의 수입증가폭이 40%로 가장 큼
- 원유는 유가상승으로 전년동월비 증가폭이 35.6%

< 2017년 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 >

순위	품목	2016.12월			2017.1월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1	원유	5,994	1.8	21.4	6,376	35.6	6.4
2	액화천연가스	3,234	-25.5	7.4	3,732	6.7	15.4
3	통신기	2,307	16.8	-10.1	3,229	5.1	40.0
4	의류 및 동부속품	2,369	-10.8	4.6	2,988	11.8	26.1
5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268	-5.5	9.1	2,371	-0.6	4.5

자료 : 일본 재무성

- 주요 지역·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EU와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증가
-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21%로 가장 큼
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0.7% 감소

< 2017년 1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 >

순위	국가	2016.12월			2017.1월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1	중국	14,836	-5.0	-0.3	17,964	7.2	21.0
2	ASEAN	8,748	-7.4	1.7	9,711	7.6	11.0
3	EU	7,157	-4.8	-0.2	6,913	-4.0	-3.4
4	미국	6,501	9.6	3.2	6,547	11.9	0.7
5	호주	3,479	7.2	7.6	3,594	22.6	3.3
6	한국	2,739	2.0	13.5	2,719	18.3	-0.7

자료 : 일본 재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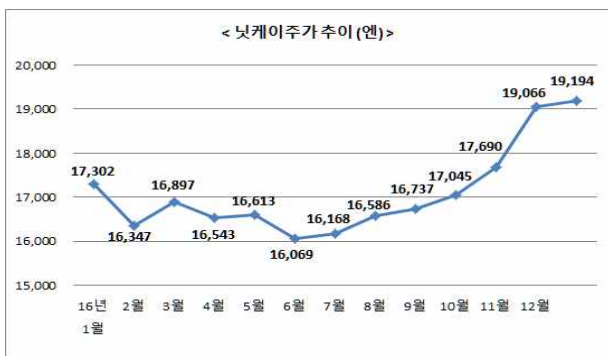
3.엔저세 약화, 주가·금리 상승

□ (주 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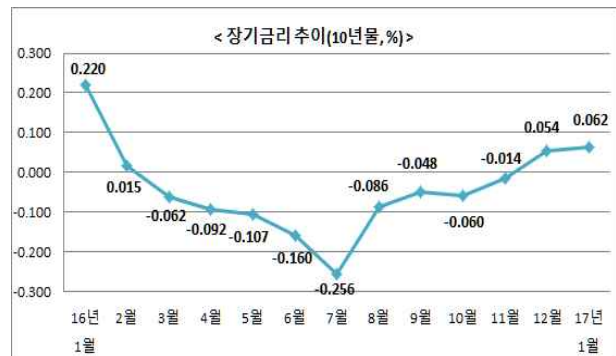
- ‘17.1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0.7% 상승한 19,194엔

□ (금 리)

- ‘17.1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의 0.054%에서 0.062%로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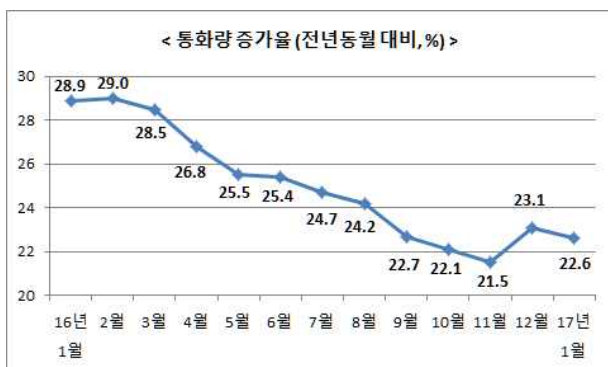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경제신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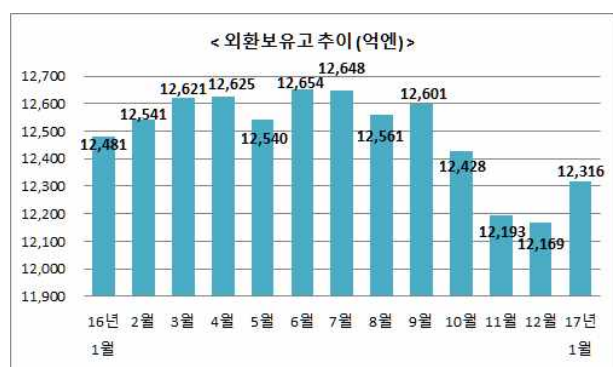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상호증권

□ (통화량)

- ‘17.1월 본원통화(머니리베이스 기준),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2.6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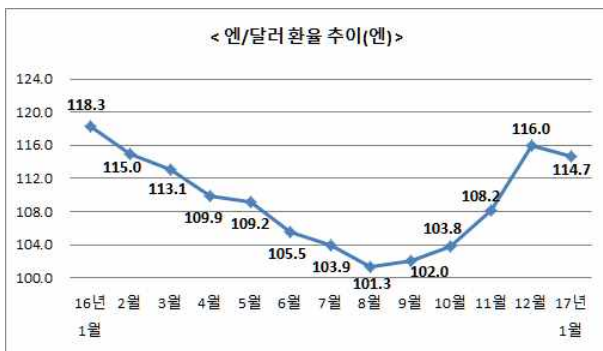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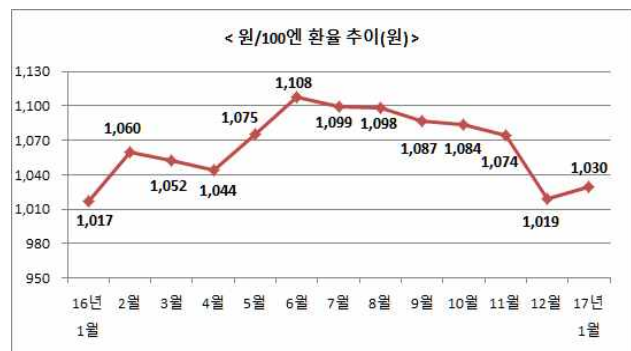
자료 : 재무성

□ (환 율)

- ‘17.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1.0% 하락한 114.7엔(엔고)
- ‘17.2월 들어서는 엔저세가 다소 약화, 2월 20일 기준 달러당 113.1엔
- 최근 엔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및 FOMC의 금리인상 등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및 이에 따른 미일금리차 확대 등이 주된 요인
- 그러나 달러화 강세의 부작용에 대한 미국 내 경제가 엔고반전을 야기할 가능성은 있음
- ‘17.1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,030원으로 전월의 1,019원에 비하여 1.1% 엔고·원저



자료 : 일본은행



자료 : 한국은행

4. 해외직접투자 3개월 만에 증가

□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·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증가가 전체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주도

- ‘16년 12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69,212억 엔으로 3개월만에 전월비 43.2% 증가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(국제수지 기준, 억 엔, %) >

		2015	2015		2016				
			3분기	4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1월	12월
금 액		696,396	176,072	217,554	127,675	186,332	171,402	48,321	69,212
증가율	전기비	-11.8	19.0	23.6	-35.0	45.9	-8.0	-10.3	43.2
	전년동기비	-11.8	2.8	9.7	-13.7	5.8	-21.2	-31.7	-10.0
									1-12월
									681,657

자료 : 일본 재무성, 주 :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416901

○ 중남미, 대양주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각각 518.9% 및 399.2%의 큰폭 증가

○ 북미 지역과 유럽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각각 51.9% 및 29.4% 증가

○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7% 감소

- 對 한국 직접투자는 262억 엔으로 35.3% 감소

<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해외직접투자 (국제수지 기준, 억 엔,%) >

국가별	2015		2016						
	금액	증가율	3분기		4분기		12월		1-12월 금액
			금액	증가율*	금액	증가율*	금액	증가율*	
대세계	696,396	-11.8	186,332	45.9	171,402	-8.0	69,212	43.2	681,657
아시아	141,593	19.0	17,298	-5.6	20,555	18.8	6,819	-7.0	80,321
중 국	14,659	1.1	2,979	-7.8	3,567	19.7	1,214	-5.8	13,076
한 국	4,714	-20.6	729	-19.0	912	25.1	262	-35.3	3,461
북 미	237,283	-2.9	31,421	12.1	38,586	22.8	15,380	51.9	181,747
미 국	230,435	-2.9	30,391	16.1	37,109	22.1	14,952	59.6	176,406
중남미	22,758	49.4	20,084	989.2	9,125	-54.6	7,247	518.9	36,110
유 럽	269,749	-30.4	113,720	56.6	95,998	-15.6	37,003	29.4	366,263
대양주	19,126	1.2	1,743	-45.4	5,049	189.7	1,952	399.2	12,925
중동	1,805	46.9	136	-68.6	172	26.5	46	21.1	1,581
아프리카	6,843	7.3	1,930	-10.4	1,919	-0.6	766	-12.7	7,297

자료 : 일본 재무성, * 전기비

III. 일본의 주요 정책

1. 미일정상회담으로 본 미일경제현안

- 2017년 2월 10일(한국시간 11일)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 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림
- 미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일동맹과 경제관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에 일치
 - 아소타로 일본 부총리와 펜스 미국부통령에 의한 대화의 틀을 신설, 재정정책과 금융 정책에서 무역, 투자 등 광범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

□ 공동선언의 요지(경제관련)

- 양국 정상은 국내 및 세계 경제수요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재정, 금융 및 구조정책 등 3가지 접근방법을 사용
-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룰에 기초하여 미일 양국간 경제관계를 강화
 - 이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, 투자에 관한 높은 기준의 설정, 시장장벽의 완화 및 철폐, 경제 및 고용의 성장기회 확대를 포함
- 양국간 무역, 투자관계의 심화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역, 경제성장 및 높은 기준의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
- 미국의 TPP 탈퇴에 유의하고 공유된 목적달성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미일 2국간 틀의 논의를 포함. 양국 정상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대화를 실시

□ 미일 경제대화 신설

- 트럼프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 미일동맹의 재검토를 제기한데 이어,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일본의 자동차무역을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는 등 일본정부 내에서는 미일 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강했음

-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일간 대립은 표면화되지 않고 앞으로 신설키로 한 새로운 미일간 경제대화에서 현안들을 다루게 되었음
-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무역적자나 최근 엔저경향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음
- 신설되는 미일경제대화에서는 (1) 재정정책,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연계, (2) 인프라, 에너지, 사이버, 우주 등의 분야에 관한 협력, (3) 2국간 무역에 관한 무역 등 3개 항목을 다루게 됨
- 다만, 미일경제대화에서 일본 측은 미일 FTA교섭을 쟁점으로부터 돌리기 위해 폭넓고 완만한 대화를 상정하고 있는데 대하여, 미국 측은 농산물관세 인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면서 개별분야에 파고들 가능성도 있음
-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도 포함한 경제대화에서는 허허실실의 줄다리기가 예상됨
- 신설되는 경제 대화와 관련하여, 아소타로 일본 부총리·재무상의 파트너가 될 펜스 미국부통령은 도요타 자동차 등과도 파이프가 두텁고, TPP 찬성론자로서 안정적인 교섭상대이며,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직접 받지 않는 틀을 만듦으로써 일본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

□ 자동차 무역의 불공평성 문제

- 트럼프 정권은 대일무역적자 축소를 거론하고 특히 자동차무역의 불공평성을 비판해왔음
-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직후 일본의 자동차무역을 불공평하다고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을 표했음
- 2016년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크며, 자동차관련 대일무역적자는 그 80% 가까이를 점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음
- 그러나 일본은 수입차의 관세를 철폐하고 있어 비판은 맞지 않다는 입장임
-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지칭한 자동차무역에 관한 비판을 하지 않았음
- 정상회담에서 아베총리가 일본계기업이 북미에 생산거점을 이전하여, 미국 내 큰 고용 창출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,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구하자,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기업의 미국 내 자동차생산을 평가한다고 함

□ 엔저 문제

- 트럼프대통령은 1월말 미국기업간부와의 회합에서 중국이나 일본은 오랫동안 지국 통화약세유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음
- 이에 아베총리는 엔저유도 비판은 역시 맞지 않는다고 반론
 -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직후 혼란했던 2011년 11월 이후 5년 이상에 걸쳐 엔화매도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임
-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지칭한 환율문제에 관한 비판은 하지 않았음
 - 다만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아베총리가 미일의 재무장관간 긴밀한 논의를 계속 해나간다고 지적하는 한편, 트럼프대통령은 오랫동안 각국의 통화가치 절하에 불만을 가져왔는바, 최단기간에 공평한 조건을 되찾고 통화약세유도의 저지 필요성을 강조

□ 미일 2국간 FTA 문제

- TPP탈퇴를 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등 2국간 통상협정 목표로 하고 있음.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배경으로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생각임
- 그러나 일본은 2국간 교섭에 들어가면 농업분야에서 TPP이상의 시장개방을 요구당할 가능성이 높음
-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FTA의 필요성은 명언하지 않았으나 회담 후 공공기자회견에서는 공정하고 양국에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바란다고 지적. 공동성명에서는 미일 2국간 틀에 관하여 논의를 해나간다고 적시
 - 일본 측은 TPP의 필요성은 설득을 하면서도 2국간 대화는 부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틀이 최선인가를 포함하여 논의하겠다고 함
- 다만, 일본으로서는 TPP이상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게 될 미국과의 FTA교섭을 가능한 한 피하는 대신, 대중무역적자로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는 미국과 대중무역 적자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을 전면에 내세우는 카드도 가지고 있음
 - 이렇게 함으로써 대일적자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희석시키고 시간도 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

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

1. 대일 무역적자 감소세 반전

□ (중 합)

- '17.1월 대일무역적자는 감소세로 반전, 전월보다 687백만 달러 감소한 1,613백만 달러
 - 큰 폭의 대일수입 감소가 대일무역적자 감소에 기여
- '17.1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.9%에서 5.3%로 상승한 반면,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1.8%에서 10.0%로 저하
 -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8.1%에서 7.6%로 저하

< 2017년 1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달러,%) >

	2016.12월			2017.1	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대일 수출	2,222	7.8	-2.4	2,137	19.3	-3.8
대일 수입	4,521	21.9	5.4	3,751	21.4	-17.0
무역 수지	-2,300	39.5	14.3	-1,613	24.5	-29.9

자료 : 한국무역통계

□ (대일 수출)

- '17. 1월 대일 수출은 2,137백만 달러로 전월에 이어 3.8% 감소
 - 이 같은 감소폭은 동기간 중 일본의 수입증가율이 8.3%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대일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시사

	대일수출증가율(%)		총수출증가율(%)		일본의 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6.12월	7.8	2.4	6.4	-0.5	-2.6	3.4
2017.1월	19.3	-3.8	11.2	-10.5	8.5	8.3

- 전월과 비교하여, 10대 수출품목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, 철강제품이 광물성연료를 제치고 대일수출 순위 1위로 부상

-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수송기계의 수출 증가폭이 24%로 가장 큼
- 대일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전자부품의 수출 감소폭이 -33.8%로 가장 큼

< 2017년 1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6.12월			2017.1월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	총계	2,222	7.8	-2.4	2,137	19.3	-3.8
1	철강제품	268	8.1	-5.0	305	37.1	13.8
2	광물성연료	399	40.5	69.8	303	60.3	-24.1
3	전자부품	216	39.2	-4.8	143	0.1	-33.8
4	수송기계	104	-18.6	-11.1	129	-6.9	24.0
5	석유화학제품	100	14.7	-13.8	120	54.8	20.0
6	정밀화학제품	113	2.8	-5.0	115	23.4	1.8
7	산업용전자제품	120	-9.5	-33.3	104	5.8	-13.3
8	기계요소공구·금형	77	-5.0	-12.5	82	-1.3	6.5
9	금속광물	90	13.2	-9.1	80	4.8	-11.1
10	농산물	80	-2.6	-13.0	79	33.0	-1.2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(대일 수입)

- '17.1월 대일수입은 3,751백만 달러로 전월비 17% 감소
-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증가율 -2.1%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서,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반영

	대일 수입증가율(%)		총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6.12월	21.9	5.4	8.0	2.9
2017.1월	21.4	-17.0	19.7	-2.1

- 전월과 비교하여 산업기계 대신에 중전기기가 10대 대일수입품목에 포함된 가운데 모든 품목의 대일수출이 감소
- 산업용전자제품의 대일수입감소폭이 -36.5%로 가장 크며, 이어 기초산업기계도 -30% 이상의 높은 대일수입감소폭을 보임

< 2017년 1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6.12월			2017.1월	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
	총 계	4,521	21.9	5.4	3,751	21.4	-17.0
1	전자부품	549	64.3	-7.3	503	21.6	-8.4
2	정밀기계	590	120.7	40.1	459	189.7	-22.2
3	철강제품	490	19.2	13.2	452	19.6	-7.8
4	석유화학제품	366	-2.4	6.4	342	21.7	-6.6
5	정밀화학제품	379	4.7	5.2	287	4.6	-24.3
6	기초산업기계	307	14.6	3.0	212	4.8	-30.9
7	수송기계	217	-10.7	-16.2	191	1.7	-12.0
8	산업용전자제품	296	21.8	13.8	188	9.1	-36.5
9	플라스틱제품	214	12.0	1.4	175	3.2	-18.2
10	중전기	146	37.3	-15.1	126	38.1	-13.7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2.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

□ (동 행) '16.4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, 큰 폭 증가

○ '16.4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359백만달러로 전기비 85.1% 증가

- 건수로는 전기비 40% 증가

-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전기비 39% 증가

○ '16.1-4분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1,24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25.2% 감소

-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는 1.9%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, 연간으로는 상대적으로 일본인투자가 부진

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(신고기준, 건, 백만달러, %) >

	2014		2015		2016.2분기		2016.3분기		2016.4분기		2016.1-4분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일본의 대한투자	352 (21.3)	2,488 (-7.5)	315 (-10.5)	1,665 (-33.1)	82 (34.4)	531 (229.8)	65 (-20.7)	194 (-63.5)	91 (40.0)	359 (85.1)	299 (-5.1)	1,246 (-25.2)
전체 외국인투자	2,463 (-5.6)	19,003 (30.6)	2,698 (9.5)	2,0909 (5.1)	760 (13.9)	6,279 (48.1)	716 (-5.8)	4,495 (-28.4)	844 (17.9)	6,250 (39.0)	2,987 (10.7)	21,299 (1.9)

주 : ()내는 전기비 증가율,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외국인직접투자통계

□ (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)

- 한국트라이(주)를 비롯하여 일본 기업인 (주)트라이우드, 더 나이스(주) 등 한국과 일본 기업 5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민간 투자개발사업인 에코 힐링 테마타운을 조성 (2017.1.22. 부산일보)
 - 진해구 웅동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부지 2~3곳을 비교 검토해 사업지를 확정하고, 면적은 약 15만㎡에 17개 테마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, 사업비는 3,500억 원 정도
- 일본 자동차용 특수금형 업계 히든챔피언인 KTX(주)가 경기도에 전진기지 구축투자
 - 투자금액은 1,000만 달러(FDI, 외국인직접투자 100%)로, 자동차 기업이 집적돼 있는 화성 장안1산단에 KTX(주) 제조공장을 준공(2017.1.20. 경기IN)
 - 경기도는 KTX(주) 공장 설립으로 고용증대와 기술이전 등 국내 자동차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

□ (시사점)

-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,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각종 한일교류채널의 네트워킹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, 최근 엔저에 따른 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의 유턴 사례분석 등을 통한 차별화된 對韓투자 유치전략 필요

V. 참고 자료
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(2017.1월~2017.2월)

☐ **국내 기관**

- 『'근무방식개선' 방안과 일본기업의 대응전략』 한국금융연구원, 2017년 2월18일
<http://www.kif.re.kr/kif2/login/login.aspx?returnurl=/kif2/publication/viewer.aspx?controlno=209077>
- 『2016년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국 및 대외관계 전망』 국립외교원. 2017년 2월6일
<http://www.ifans.go.kr/knda/ifans/kor/act/ActivityView.do>
- 『최근 일본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과 대응전략』 한국금융연구원, 2017년 2월4일
<http://www.kif.re.kr/kif2/login/login.aspx?returnurl=/kif2/publication/viewer.aspx?controlno=208323>
- 『일본은행, 금융정책 현상유지 및 성장전망 상향조정』 한국은행, 2017년 1월31일
<http://www.bok.or.kr/contents/total/ko/boardFcountryView.action?boardBean.brdid=133310&boardBean.menuid=2229&boardBean.rnum=15&menuNavild=2215&boar>
- 『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과 영향』 한국금융연구원, 2017년 1월21일
<http://www.kif.re.kr/kif2/login/login.aspx?returnurl=/kif2/publication/viewer.aspx?controlno=207659>

□ 일본 기관

- 『제4차 산업혁명에 도전하는 중견·중소기업에 지원시책』 로봇혁명이니셔티브, 2017년 2월22일
https://www.jmfri.gr.jp/content/files/20170221meti_sme_support/meti_sme_support.pdf
- 『제4차 산업혁명을 지탱하는 3가지 키워드』 교토은행, 2017년 2월18일
http://www.kyotobank.co.jp/houjin/report/pdf/201701_01.pdf
- 『아시아경제의 차기 성장모델-세계의 공장을 넘어서』 일본은행, 2017년 2월15일
http://www.boj.or.jp/announcements/press/koen_2017/data/ko170214a1.pdf
- 『산업구조심의회, 통상·무역분과회 안전보장무역관리소위원회 중간보고』 경제산업성, 2017년 2월3일
<http://www.meti.go.jp/report/whitepaper/data/20170123001.html>
- 『트럼프노믹스하의 일본경제의 향방』 이와테경제연구소, 2017년 2월2일
http://www.iwatekeizai.org/wp-content/uploads/research/description-ex_201701-1.pdf
- 『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-FITPL(물가수준의 재정이론)의 프레임웍』 자본시장연구회, 2017년 1월27일
<http://www.camri.or.jp/annai/shoseki/gekkan/2017/pdf/201701-3.pdf>
- 『엔저국면에서 수출침체의 배경과 회복의 지속성에 관한 고찰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2017년 1월27일
<https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insight/jp170126.pdf>
- 『AI는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』 미즈호정보종합연구소, 2017년 1월26일
https://www.mizuho-ir.co.jp/publication/contribution/2017/seikyō1701_02.html
- 『일본계 제조업의 해외거점의 생산성은 향상, 국내생산성은 담보』 경제산업성, 2017년 1월26일
<http://www.meti.go.jp/statistics/toppage/report/minikeizai/pdf/h2amini071j.pdf>
- 『일본 제조업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조사보고』 국제협력은행, 2017년 1월25일
http://www.jbic.go.jp/wp-content/uploads/reference_ja/2017/01/52756/20170124_spot.pdf
- 『일본의 산업입지와 대일투자촉진책』 일본 국회도서관, 2017년 1월25일
http://dl.ndl.go.jp/view/download/digidepo_10265297_po_079202.pdf?contentNo=1

2. 주요 경제 일정

<2월 실적>

일자	주요내용
7	- 중의원예산위원회 - '17.1월말 외환보유고 발표(재무성) * 1조 2,316억 달러(전월대비 147억 달러 증가)
8	- '16.12월과 '16년의 국제수지 속보치 발표(재무성) * '16년 경상수지는 20조 6,496억 엔(전년대비 4조 2,370억 엔 증가)
10	- 미일 정상회담(워싱턴)
13	- '16년 4분기 GDP 속보치 발표(내각부) * 전기대비 0.24%, 연율환산으로 1.0% 증가
14	- 중의원예산위원회
15	- 도요타자동차, 후지중공업 등 각 자동차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춘투 요구를 제출 * 베이스업(기본임금 개선) 월 3,000엔 요구('16년과 동일 수준) - '17.1월 방일 외국인객수 발표(일본정부관광국) * 229만 5,700명(관광, 비즈니스 포함), 한국인 방문객 62만 5,400명(전년동월대비 21.5% 증가)
20	- '17.1월 무역통계 발표(재무성) * 수출 5조 4,219억 엔(전월대비 19.4% 감소), 수입 6조 5,088억 엔(전월대비 8.3% 증가)
21	- 모노즈쿠리산업노동조합 춘계노사협상 요구서 제출 * 베이스업 월 “6,000엔 이상”을 요구('16년의 “6,000엔”보다 높은 개선 요구)
23	- 2월 정례경제보고(내각부)
24	- 월말 금요일에 조기퇴근을 촉구하여 소비를 환기시키는 ‘프리미엄 프라이데이(Premium Friday) 시행’ 시행

<3월(예정)>

일자	주요내용
17~18	-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(독일) - 미일 재무장관회의
20	- 日러 외무장관 회담(도쿄)
월내	- 아베 총리 독일 방문, 獨日 정상회담